

2015년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 대본공모 지원심의평

2015년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사업은 우수한 창작뮤지컬 레퍼토리 육성을 목표로[대본>시범>초연>재공연]의 단계별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중 첫 번째 단계인 대본공모는 우수한 창작뮤지컬 신작에 상금과 더불어 2016년 시범공연 제작지원에 자동 선정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대본공모에는 총 86편이 접수되었고 결격사항에 해당하는 5편(서류미비, 중복신청, 신청포기)을 제외한 81편을 심사하였다. 무기명의 대본, 악보, 음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예술성(40%), 대중성(30%), 무대화에 따른 발전 가능성(30%)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약 2개월간의 예심을 통해 15편을 1차 선정하였고, 2주간의 본심을 거쳐 6편(최우수 1편, 우수4편, 시범공연 1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의 공통된 의견으로 최우수 작품 1편, 우수작품 4편을 선정하였다. 그와 더불어 예산의 제약으로 수상은 불가하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작품(접수번호 201530683)을 2016년도 시범공연 제작지원 진출 작품으로 추가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작품에 대한 심사위원의 총평은 아래와 같다.

최우수 작품<곤 투마로우(대표 이성일, 작 이지나, 곡 최종윤)>는 뮤지컬 장르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대본이다. 기존의 희곡을 각색한 작품이지만 뮤지컬로서의 정체성이 희곡을 앞선다는 점에서 이 대본의 성취는 돋보인다. 원작의 사유와 음악적 화술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뤘기에 가능한 결과였을 것이다. 공간적 화술이 대본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도 의미 있게 언급해야 할 부분이다. 스토리의 간결한 압축이 다소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서사적 재현이 아니라 연출적 해석을 끌어내는 설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연을 기대하게 하는 지점이다.

우수작품1<글뤽아우프;행운을 빌어요(작 이은혜, 곡 이유정)>는 파독 광부를 다룬 소재의 신선함이 눈에 띄는 대본이다. 소재의 신선함은 주제의 진지함으로 이어지고, 음악의 완성도 또한 작품의 무게를 더하는 데 일조한다. 다만 간힘과 탈출이 상징적 의미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인물의 설정이나 사건의 구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극의 결말이 갖는 의미가 분명해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우수작품2<레드북(작 한정석, 곡 이선영)>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사회적 금기와 편견을 풍자하는 재치 있는 대본이다. 편견에 맞서 자아를 찾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겁지 않은 음악과 잘 어우러져 재미있게 읽힌다. 가벼움이 장황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압축될 필요가 있고, 풍자를 의도하느라 조야해진 표현을 다듬는 과정 또한 필요해 보인다. 대본의 참신함을 무대화 시키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고민이 많이 요구되는 대본이다.

우수작품3<청년모험가회사-경성특사(대표 현어진, 작 정준, 곡 박기영)>는 1920년대 경성이 배경이지만 시대의 무게에 매이지 않는 모험활극이다. 무거운 시대를 단순한 소재로 돌리는 상상력이 새롭고 경쾌하다. 현대적인 분위기의 음악은 이 작품의 기조를 잘 보여준다. 다만 추리극에 걸맞게 사건의 진행을 위한 복선이 잘 설정되어야 하며,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극의 중심을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공연화의 과정에서 극이 무거워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우수작품4<아라비안 나이트(작 한지안, 곡 류찬)>는 천일야화의 에피소드를 소재 삼아 ‘이야기’라는 핵심어를 파고드는 대본이다. 이야기를 전개하는 구성이 흥미롭다. 장면과 음악의 조화가 돋보이고 극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음악의 역할 또한 기능적이다.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상상력과 음악의 완성도가 균형을 잡고 있는 대본이다. 안무 등 무대화의 상상력이 효과적으로 가미된다면 다양한 세대의 관객을 아우르는 작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극을 진행하는 중심축이 대사에 기울어져 있는 것은 의식해야 할 문제이다.

시범공연 선정작<로빈슨 크루소를 찾아서(대표 권근용, 작 문혜영, 곡 이필승)>는 일인극 형식으로 비급 정서를 표방하는 독특한 대본이다. 일인극의 특성상 이야기는 단조로운 면이 있지만 소리와 조합된 음악의 시도는 참신하다. 일인 배우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음악적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인극이라는 형식에 걸맞는 극적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배우 의존도가 높은 대본이지만 음악적 완성도와 에피소드의 보강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새로운 대본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평가한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소재와 주제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상관없이, 모든 작품에서 서사와 음악이 균형있게 어우러졌다는 점이다. 완성도 있는 창작뮤지컬을 기대할 만한 근거가 탄탄해지고 있다.

매년 대본공모에 지원하는 작품이 늘어나고 있음은 분명 긍정적인 지표이다. 하지만 아직은 뮤지컬의 문법을 숙지하지 못한 작품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서사와 음악을 뮤지컬의 논리에 맞게 조합시키는 기술의 숙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가능성 있는 작품으로 언급된 대본들이 개발단계에서부터 여러 통로의 지원을 받은 작품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뮤지컬 창작의 첫 단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길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창작자들에게 시범공연 지원공모에 다시 도전할 것을 권한다. 작품은 언제나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도 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심의위원 일동